

삼천 주공 3단지 재개발 소음·분진에 주민 반발

방음벽 미설치 철거 논란... 주민 "수개월간 생존권 침해" 주장 코오롱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사"... 완산구,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전주 삼천 주공 3단지 재개발 철거 공사를 둘러싸고 인접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이 소음과 분진,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방음벽 없이 철거 공사가 진행돼 생활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은 "관련 기준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전주 삼천 주공 3단지 재개발 철거 공사를 둘러싸고 인접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이 소음과 분진,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 주공 3단지 재개발사업 인접 지역인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월부터 재개발 대상인 5층 노후 아파트 철거가 시작된 이후 수개월간 극심한 소음과 분진, 비산먼지에 시달렸다"고 7일 주장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 수 없고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며 "공사 현장과 아파트가 매우 가까운데도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가 진행돼 피해를 더욱 컸다"고 말했다.

실제 삼익아파트 주변에는 "창문도 못 연다. 빨래도 못 낸다", "소음으로 정신병 걸리겠다",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지역 주민 무시하는 코오롱글로벌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여러 장 게시돼 주민들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은 방음·방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장 가림 시설도 낮고 일부는 마대 등을 이용한 임시 차단시설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장과 맞닿은 삼익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는 콘크리트가 뒤틀려 최근 긴급 보수공사가 이뤄지는 등 안전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철거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협상을 하지는 것은 이미 피해를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향후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분진 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삼익아파트 주민대표 측은 오는 9일 주민 공청회를 열어 피해 보상과 향후 공사 과정에서의 환경 저감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관련 기준에 맞춰 소음과 분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9일 주민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가림시설 등에 대한 지적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일부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완산구청 환경관리팀은 지난 6월 22일 공사 현장의 방음벽 미설치와 관련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를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삼익아파트 간 토지 경계 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양측이 경계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 판결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주민 피해가 제기될 경우 객관적인 환경 측정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 주민과 시공사 간 충분한 소통이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심속 여름 피서공간 '덕진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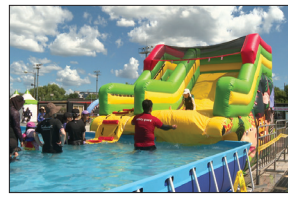
전주시, 여름철 수변시설·야간 콘텐츠 본격 운영

전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운 도심에서 시원하고 특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덕진공원의 수변 시설과 야간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 줄 분수와 벽진폭포, 참포원, 맑겠 숲 놀이터 물담뱃 등 다양한 수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원한 물줄기와 자연이 어우러진 친수공간은 시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에서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대표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호수에는 연꽃이 활짝 피고 호수 서측 수목길도 절경을 이루면서 여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연꽃과 수목, 호수 풍경을 함께 감상하며 한여름 자연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낮뿐 아니라 밤에도 시민들이 덕진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야간 콘텐츠도 운영한다. 연화정과 연화교, 연지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야간경관조명과 수변탐터는 아름다운 여름밤을 연출하고 있다. 분수 역시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 10분, 오후 8시 30분 등 하루 세 차례 운영돼 낮과 밤 모두 시원한 경관을 선사한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여유롭게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시설 운영시간도 확대했다. 연화정 도서관은 여름철 동안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공원 경관조명은 자정까지 점등된다. 특히 연화교 경관조명은 새벽 2시까지 운영돼 늦은 시간에도 덕진호수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월드컵광장 대형 물놀이장 25일 개장

전주월드컵광장이 전주지역 어린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도심 속 대형 물놀이장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폭염에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에서 2026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물놀이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구체적으로 대형 슬라이드와 조립식 풀장, 유아용 풀장 등 기존의 물놀이 시설을 비롯해, 인기 시설인 워터버스 캐이 신규 도입된다. 또, 이용 연령을 유아~초등학생으로 낮춰 아이들의 재미는 더하되 보호자의 걱정은 한층 덜어냈다.

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주변에는 무더위쉼터와 대형 그늘막,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보다 쾌적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민·관 협력 복지 거버넌스 강화

전주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정기회의 가져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출발한 민선9기 조지훈 전주시장이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핵심 축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연합회(회장 전석진)는 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9기 전주시정의 복지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전주형 동네복지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주 시 35개 동에서 활동 중인 530여 명의

위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협의체는 오는 9월 추진 예정인 선진지 견학 계획을 점검하고, 전주시 복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취약 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온정 나눔 꾸러미'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조지훈 전주시장도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위원장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취하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시민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전석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연합회장은 "새로운 전주시정과 맞닿아 민·관이 한마음으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가동하겠다"면서 "오늘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연합회는 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논의된 온정 나눔 꾸러미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35개 동 최일선 복지 현장에서 이웃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며 전주형 동네 복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오

신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시정이 바뀌어도 전주시 복지의 중추치는 오직 하나, 시민 모두가 특별해지는 복지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장에서 지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시 기반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인재 양성 협력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지난 6일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북 공간정보·AI 기반 건설 디지털 전환 혁신인재 양성단(단장 황지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 시티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연구 및 인재양성사업 등에 참여하고, 배출된 인력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협써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연구 인력 및 자원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 추진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및 정보 교류 △데이터·연구 자료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